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비추소서” 50년 된 발전소 돌리는 쿠바...수백만명 덮친 정전사태 사흘째



50년 된 발전소 돌리는 쿠바...수백만명 덮친 정전사태

고질적인 전력난에 시달리는 카리브해 섬나라 쿠바에서 대규모 정전 사태가 복구 지연 속에 사흘째 이어졌다. 20일(현지시간) 로이터 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쿠바에서는 지난 18일 화력발전소 고장으로 수도 아바나 등 전국에서 정전 사태가 벌어졌다.

전력 공급은 18일 밤 일부 재개됐지만 24시간도 채 지나지 않은 19일 오전 다시 중단됐다. 그 뒤 같은 날 저녁, 당국은 전력 회복에 약간의 진전이 있다고 발표했으나 몇 시간 뒤 다시 전기가 끊겼다. 쿠바 에너지부는 서비스 재개를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전력 시스템을 복구하는 과정이 계속 복잡해지고 있다”고 밝혔다.

로이터는 이날 새벽까지도 전력은 복구되지 않았으며 수백만 명이 정전으로 인한 암흑 때문에 크고 작은 불편을 겪는 상태라고 전했다. 에너지 위기가 최고조에 달하면서 쿠바는 전력 사용을 줄이기 위한 긴급조치에 들어갔다. 비필수적인 사업체에는 생산 중단 명령이 내려졌고, 학교와 문화시설 등은 문을 닫았다.

마누엘 마레로 쿠바 총리는 “최소한의 전기 서비스를 보장하기 위해 경제를 마비시켜야 했다”고 말했다. 미겔 디아스카넬 쿠바 대통령은 “정부가 에너지 비상사태 해결에 절대적 우선순위를 두고 있으며 전력이 복구될 때까지 쉬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전력 공급이 아직 완전히 복구되지 않은 상황에서 허리케인 오스카가 이날 오후 쿠바에 상륙할 것으로 예상돼 우려를 더 하고 있다. 쿠바는 노후화된 시설과 경제난에 따른 연료 수급 부족으로 반복적인 정전을 겪어왔다. 전력 생산을 화력발전소 8곳에 거의 의존하고 있는데 대부분 만들어진 지 50년 가까이 됐지만 제대로 된 유지보수는 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미국의 무역 제재에 따른 외화 부족과 경제난으로 원유 수입이 어려운 점도 한몫했다.

쿠바는 베네수엘라에서 저가로 제공받던 원유 공급도 줄어들면서 태양광 발전시설을 확대하기로 하는 등 에너지난 타개에 안간힘을 쓰고 있지만 아직 이렇다 할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정전이 길어지자 쿠바 국민들의 불만도 커지고 있다. 로이터는 자사 기자들이 지난 밤사이 아바나에서 두 차례 소규모 시위를 목격했다고 전했다(출처: 연합뉴스).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어두운 데에 빛이 비치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고린도후서 4:4,6)

하나님, 최소한의 전기 서비스를 보장하기 위해 경제를 마비시켜야 할 만큼 고질적인 전력난과 경제난에 시달리고 있는 쿠바를 주께 의탁드립니다. 하나님 없이 세워진 오랜 공산주의 가치로 인해 고립된 생활과 궁핍한 삶을 살고 있는 이 땅에 주님을 만날 만한 때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이 모두에게 미칠 수 있도록 핍박받는 쿠바교회가 일어나 그 빛을 세상에 비추는 증인이 되게 하소서. 그리하여 혼합 종교로 이 땅을 혼미케 하는 사탄의 어두운 세력이 무너지고 영혼들이 그리스도의 신부로 거듭나 다시 오실 신랑 예수님을 고대하는 자로 살게 하소서.

한주간 긴급기도 [소그룹1]

▲ 유엔 “우크라이나 토지 4분의 1, 지뢰 위험지역”

러시아 침공 이후 우크라이나 국토의 약 4분의 1 이상이 지뢰로 사용 불가능해졌으며, 연간 15조 원(110억 달러)의 경제 손실이 발생했다고 연합뉴스가 17일 전했다. 유엔개발계획(UNDP)이 16일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우크라이나는 현재 세계에서 가장 지뢰가 많이 매설된 국가로 평가되고 있으며, 국토 4분의 1인 약 13만 9,060km²가 지뢰 위험지대로 전면 출입 금지 상태다. 유엔개발계획은 지뢰 위험지대는 현장 조사와 지뢰 제거가 마무리되기까지 아무도 이용할 수 없고 사람이 접근하지 못해 농경지와 각종 발전시설 용지, 주거지 등이 가장 큰 손실을 보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유엔개발계획은 인도적 활동인 지뢰 제거에 346억 달러(약 47조 원)의 비용이 들 것으로 추산했다.

그들은 오래 황폐하였던 곳을 다시 쌓을 것이며 옛부터 무너진 곳을 다시 일으킬 것이며 황폐한 성읍 곧 대대로 무너져 있던 것들을 중수할 것이며, 땅이 싹을 내며 동산이 거기 뿌린 것을 움돋게 함 같이 주 여호와께서 공의와 찬송을 모든 나라 앞에 솟아나게 하시리라(이사야 61:4,11)

하나님, 러시아 침공 이후 군사적 충돌로 인해 세계에서 가장 지뢰가 많이 매설된 국가가 되어버린 우크라이나의 열악한 상황을 돌아보옵소서. 황폐한 성읍과 같이 전쟁으로 삶의 기반이 무너진 이들의 터전을 회복하여 주시고 전쟁으로 인한 공포와 상실된 마음을 주께서 위로하여 주시길 간구합니다. 몸 된 교회가 먼저 기도하고 섬김으로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는 통로되게 하소서. 또한 화평의 복음을 선포하시라 영과 육을 해하는 전쟁이 멈춰지고, 우크라이나에 여호와와 그의 공의와 찬송이 모든 나라 앞에 솟아나게 하옵소서.

▲ 수단 기독교인들, 두 이슬람 세력 사이에서 고통

수단에서 기독교인들이 두 개의 이슬람 무장 세력 사이에 끼어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모닝스타뉴스가 최근 전했다. 매체에 따르면, 수도 카르툼 남동쪽의 게지라 주에서는 신속지원군(RSF)이 알 토라 모베 마을의 기독교인들을 이슬람으로 개종하도록 강요하고 있으며, 탈출을 시도하는 사람들은 수단군(SAF)을 지지하는 것으로 간주되어 신속지원군에 의해 처벌받고 있다고 기독교세계연대(CSW)가 밝혔다. 지난해 12월부터 이 마을을 통제하고 있는 신속지원군은 마을을 탈출하려는 사람들을 수단군과 연루됐다고 비난하고 있다. 리버 나일 주 셴디에서는 수단군 군사 정보부가 최근 26명의 남성, 대부분 기독교인을 신속지원군과 연계했다는 혐의로 체포했다. 14명은 풀려났지만 나머지 12명은 여전히 구금 중이다. 이들은 셴디의 수단 기독교 교회(SCOC) 건물에서 체포됐으며, 군사 정보부는 이들을 괴롭히고 신체적으로 학대했다. 기독교세계연대는 이들의 즉각적인 석방을 요구하고 있으며, 전쟁으로 피난 온 사람들이 겪는 인도주의적 위기에도 깊은 우려를 표명했다. 2023년 4월, 수단군과 신속지원군 간의 분쟁이 시작되면서 수단 내에서 많은 사람들이 피난을 갔으며, 수백만 명이 피해를 입고 있다.

다툼을 좋아하는 자는 죄과를 좋아하는 자요 자기 문을 높이는 자는 파괴를 구하는 자니라, 악인은 사람의 품에서 뇌물을 받고 재판을 굽게 하느니라 지혜는 명철한 자 앞에 있거늘 미련한 자는 눈을 땅 끝에 두느니라(잠언 17:19,23-24)

하나님, 신속지원군과 수단군 간의 분쟁에 끼어 강제 개종을 강요받고, 학대와 통제 속에 살아가고 있는 수단의 기독교인들을 돌아보옵소서. 자신의 권력을 강화하기 위해 다툼을 좋아하고, 재판을 굽게 하여 수많은 민간인과 성도들을 괴롭히는 두 세력의 죄악을 꾸짖으시고 사탄의 간계를 멸하소서. 환난 중에 있는 수단교회에 십자가를 밝히 볼 수 있는 지혜와 명철을 주시길 간구합니다. 이들을 복음의 증인 삼아 주셔서 구원받을 영혼들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하시고 내적 평안과 승리는 삶으로 함께 하옵소서.

“보라 내가 그를 만민에게 증인과 인도자와 명령자로 삼았나니”
레바논 기독교인들, 남부 난민 위해 교회·집 개방



레바논 기독교인들이 남부 지역 난민들을 위해 교회와 집을 개방하고 있다고 에반젤리컬 포커스가 14일 전했다. 레바논의 교회와 기독교 단체들은 남부 지역에서 탈출하는 수천 가구의 강제 이주에 대한 답을 찾으며 도움을 제공하고 있다.

레바논 베카 주의 자흐레(Zahlé) 도시에 위치한 트루바인 침례교회(True Vine Baptist Church)는 독일의 기독교 NGO인 히멜스펠렌(Himmelsperlen)과 긴밀히 협력하면서 시리아 난민들에게 의료 지원과 의류 제공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트루바인 교회는 600명의 난민 아동들을 위한 학교도 운영하고 있었으나, 보안상의 이유로 수업이 중단됐다. 독일 뉴스 통신사인 이데아(Idea)에 따르면, 현재 최소 30가구, 총 150명이 이 침례교회를 통해 남부 레바논의 공격에서 탈출해 피난처를 찾았다. 이들은 학교, 교회 시설 또는 교회 회원들의 가정에서 머물고 있다.

이스라엘 군대와 헤즈볼라 민병대의 전투로 인해 자흐레 시, 특히 트루바인 예배 장소가 있는 지역이 공격받은 적이 있지만, 이 지역은 여전히 레바논 남부보다 안전한 편이다. 히멜스펠렌의 회장인 마르그렛 마이어(Margret Meier)는 “이데아에 트루바인 침례교회 리더십은 무슬림 배경의 가정들을 섬기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시아파들을 섬길 수 있다는 것은 특권이 라고 말했다”고 전했다.

현재 독일의 선교 기관은 구호 물품을 가득 실은 컨테이너를 해상으로 레바논에 보내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다. 레바논에는 총 1,600명의 성도로 구성된 32개의 침례교회가 있다. 레바논 인구의 대부분은 무슬림이지만, 약 30%는 기독교인으로 알려져 있다(출처: 복음기도신문).

보라 내가 그를 만민에게 증인으로 세웠고 만민의 인도자와 명령자로 삼았나니 보라 네가 알지 못하는 나라를 네가 부를 것이며 너를 알지 못하는 나라가 네게로 달려올 것은 여호와 네 하나님 곧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로 말미암음이니라 이는 그가 너를 영화롭게 하였느니라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이사야 55:4-6)

하나님, 이스라엘과 헤즈볼라 전쟁으로 레바논에 인명피해가 막대한 가운데 난민 발생이 가중되어 도움의 손길이 절실히 필요한 순간에 주님의 몸 된 교회를 준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피란민들에게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는 성도들의 사랑과 섬김이 저들의 육체와 영혼에 피난처 되게 하시며 복음의 통로가 되게 하옵소서. 속히 이 전쟁을 멈춰주십시오. 레바논에 십자가의 증인을 더욱 세워주셔서 이때가 바로 주님을 만날 때임을 깨달아 가까이 계신 주님을 찾고 구하여 구원의 영광되신 여호와를 만나게 하소서.

▲ 소말리아 MBB 성도, 이슬람 친척들에 여러 차례 공격 받아

소말리아에서 무슬림 배경의 기독교인(Muslim Based Believer, MBB)이 이슬람 친척들에게 잇달아 공격을 받았다고 모닝 스타뉴스가 21일 전했다. 하부 주바 지역의 한 마을에서 MBB인 모하메드 압둘은 지난 5월과 7월에 폭행을 당한데 이어 10월 5일에도 또 다시 공격을 받았다. 압둘의 친척들은 최근 집에서 문을 잠그고 예배를 드리던 그를 밖에서 기다리다, 집 밖으로 나오는 그를 공격했다. 그들은 그에게 “왜 이슬람 방식이 아닌 다른 방식으로 예배하느냐”고 시비를 걸고, 압둘은 기도는 자신과 주님 이사(예수) 사이의 비밀이라고 답하며 기독교 신앙을 고백했다. 그러자 친척 중 한 명이 그를 폭행했고, 다른 이들은 둔기로 그에게 상처를 입히고 그를 때렸다. 이로 인해 압둘은 오른쪽 손가락 부상과 얼굴에 상처를 입고, 왼손에 골절을 당했다. 지난 8월부터 세 그룹을 이끌며 성경 공부와 기도를 계속하던 압둘은 5월의 첫 번째 공격에서는 그의 아내와 자녀들이 잠시 그의 친척들에게 납치됐고, 집이 부서지기도 했다.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선한 양심을 가지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의 선행을 욕하는 자들로 그 비방하는 일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려 함이라(베드로전서 3:15-16)

하나님, 무슬림이 대부분인 소말리아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증인을 세워주셔서 감사합니다. 친척들의 잇달은 공격에도 자신의 신앙을 고백한 압둘 형제의 마음을 더욱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압둘과 같이 원수의 손에 둘러싸여 폭력과 목숨의 위협 앞에 놓인 성도들을 안전하게 보호하시고 말씀으로 붙들어 주시길 간구합니다. 언제든지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게 하소서. 그리하여 이슬람의 거짓에 사로잡혀 선행을 욕하는 자들과 비방하는 일들이 부끄러움을 당하고 우상의 속박에서 벗어나 그리스도께 돌이키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 WHO, 콜레라 발병국 30개... 사망자는 작년의 두 배

올해 전 세계 콜레라 발병국이 30개국에 달하고, 사망자는 작년보다 두 배 이상 증가했다고 세계보건기구(WHO)가 18일 밝혔다. 올해 1월부터 9월까지 콜레라 발병 건수는 43만 9,724건, 사망자는 3,432명으로 집계됐으며 발병 건수는 작년보다 16% 감소했지만, 사망자는 126% 증가했다. 이는 분쟁 지역과 홍수로 인해 의료 접근성이 떨어진 지역에서 발병이 심각해진 결과다. 니제르와 태국이 올해 발병국으로 추가됐으며, 레바논에서도 발병 사례가 나타나 도움이 절실한 것으로 보인다. 콜레라는 오염된 물이나 음식을 통해 감염되며 심한 설사와 탈수를 일으킨다. 백신이 효과적이지만 공급이 부족해 백신 투여량을 줄이는 임시방편이 사용되고 있다. WHO는 콜레라 백신 비축량이 거의 소진된 상태라고 경고하며, 백신 증산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보라 내가 이 성읍을 치료하며 고쳐 낮게 하고 평안과 진실이 풍성함을 그들에게 나타낼 것이며, 그 날에 유다가 구원을 받겠고 예루살렘이 안전히 살 것이며 이 성은 여호와와 우리의 의라는 이름을 얻으리라(예레미야 33:6,16)

하나님, 분쟁과 자연재해로 올해 콜레라로 인한 사망자가 작년보다 두 배 이상 증가하여 백신 공급이 부족한 전 세계의 상황을 돌봐주십시오. 인간의 죄로부터 시작된 모든 분쟁과 이상기후에서 비롯된 재해들을 다스려 주시고 복음을 계시하시라 생명의 주권자 되신 주께로 돌이키게 하옵소서. 특별히 의료적 접근성이 어려운 지역들을 의탁드립니다. 이들을 치료하며 고쳐 낮게 하시고 평안과 진실이 풍성한 주님을 나타내 주십시오. 그리하여 마침내 그날에 약속하신 구원과 평안을 믿음으로 누리며 만민이 그 이름을 높여 찬양케 하소서.

“너희는 살려면 선을 구하고 악을 구하지 말지어다”
트랜스젠더 미성년자 1만 4,000명...관련산업 1억 달러 수익



2019년부터 2023년까지 미국에서 약 1만 4,000명의 미성년자들이 트랜스젠더 수술, 사춘기 억제제, 혹은 성전환 호르몬 주사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두노함(Do No Harm) 그룹에 따르면, 미성년자 성전환 치료로 최소 1억 1,979만 1,202달러(약 1,616억5,822만 원)의 수익을 창출했다고 워싱턴스탠드가 전했다.

미국 정신과 전문의 미리엄 그로스만(Miriam Grossman) 박사는 “이 데이터 공개는 정말 핵폭탄”이라며 “정치인들과 일부 단체들이 미성년자에 대한 성전환 치료나 수술 같은 의료 개입이 드물게 일어나는 일이라고 주장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고 말했다.

그는 “이런 실험적 절차들이 확산된 것은 돈 때문이기도 하지만, 미국 소아과학회와 미국 정신의학회가 오랫동안 소수의 활동가들에 의해 장악되어 그들의 의제를 추진하고 논쟁을 억압하고 있기 때문”이라며 “너무 많은 동료들이 단순히 용기가 없어서 이에 반대하는 목소리를 내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두노함의 회장인 스탠리 골드파브(Stanley Goldfarb) 박사는 “이 데이터는 빙산의 일각을 나타내지만, 이는 의료 업계가 취약한 어린이들에게 과학적 근거 없이 행해진 착취적 의료 개입에 책임을 묻는 첫 단계”라고 말했다. 이러한 시술은 의료 시설에 수백만 달러를 벌어들이기도 했다. 보스턴 아동 병원은 500만 달러(67억 5,400만원) 이상의 수익을 올렸다.

이 단체는 소아 트랜스젠더 시술로 가장 많은 수익을 올린 병원 목록을 발표했다. 여기에는 필라델피아 어린이 병원, 코네티컷 어린이 의료 센터, 어린이 미네소타, 시애틀 어린이 병원, 로스 앤젤레스 어린이 병원, 보스턴 어린이 병원, 래디 어린이 병원, 어린이 국립 의료 센터, 오클랜드 UCSF 베니오프 어린이 병원, 콜로라도 어린이 병원, 피츠버그 UPMC 어린이 병원, 신시내티 어린이 병원 메디컬 센터가 포함됐다.

그로스만은 “트랜스젠더 활동가들 때문에, 아이들은 영구적으로 신체적으로 변형되고 있다. 그들은 미래에 생물학적 자녀를 가질 수 있는 능력을 잃고 있다. 그들 중 많은 사람들이 성적 기능이 손상되거나 많은 다른 의학적 및 정신적 문제를 겪고 있다”고 지적했다.

가족연구위원회의 가족연구센터 소장인 제니퍼 바우웬스(Jennifer Bauwens) 박사는 “이들은 일부 의료계나 사회적 흐름에 의해 이용당했고, 일단 성별 확인 치료가 시작되면 발생하는 문제에 대해 적절하게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부족하다. 탈전환 과정에는 심리적 치료, 호르몬 치료 중단, 수술 등이 포함될 수 있는데 여기게 보험 적용이 어렵다. 또한 정신적 상처나 외상을 치료할 지원 또한 없다”고 말했다(출처: 복음기도신문 종합).

너희는 살려면 선을 구하고 악을 구하지 말지어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의 말과 같이 너희와 함께 하시리라 너희는 악을 미워하고 선을 사랑하며 성문에서 정의를 세울지어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흑시 요셉의 남은 자를 불쌍히 여기시리라(아모스 5:14-15)

하나님, 주께서 주신 태생적 성을 역으로 바꿔 돌이킬 수 없는 신체적, 정신적 손상으로 고통당하는 미성년자들이 1만 명이 넘어서고 있다는 비극적인 현실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돈과 정치적 유익을 위해 어린이들에게 성전환의 악행을 유도하고 시행하는 활동가들과 위정자, 병원들을 꾸짖어 주십시오. 이 땅 영혼들이 죄에 대한 진리를 외면하지 않도록 교회가 더욱 분명한 십자가의 복음을 선포하여 악을 멀리하고 선을 사랑하는 자들로 변화시켜 주소서. 특별히 성전환으로 고통받는 청소년들이 이 기쁜 소식을 듣고 여호와께 돌아와 새 생명의 축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한주간 긴급기도 [소그룹3]

▲ 아프간, 급성 영양실조 5세 미만 아동 320만 명

아프가니스탄의 영양실조 및 기아 상황이 심각하게 악화되고 있으며, 특히 아동, 임산부와 모유 수유 여성의 급성 영양실조 숫자가 전례 없는 수준에 도달했다고 릴리프웹이 21일 보도했다. 국제적십자사연맹(IFRC)의 국제구호긴급기금(DREF)이 최근 발표한 글로벌 기아 지수에 따르면, 아프가니스탄의 영양실조 문제의 원인인 지속적인 가뭄, 자연재해, 인구의 이주, 생활비 급증, 식량 불안정, 대규모 실업 등으로 영양실조가 5월-9월 사이에 심각하게 악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로 인해 현재 급성 영양실조에 처한 5세 미만 아동은 320만 명이며, 임산부·수유부는 84만 명으로 집계됐다. 이 중 170만 명의 아동이 심각한 급성 영양실조와 관련 의학적 합병증으로 고통받고 있으며, 이로 인한 조기 사망과 인지 능력 저하, 발육부진 등 합병증을 겪을 수 있다. 보고서는 급성 영양실조 사례는 매일 증가하고 있으며, 국제구호긴급기금 지원 등 즉각적인 개입이 없다면, 특히 5세 미만 아동의 영양실조 관련 사망자 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가난한 자를 보살피는 자에게 복이 있음이여 재앙의 날에 여호와께서 그를 건지시리로다 여호와께서 그를 지키사 살게 하시리니 그가 이 세상에서 복을 받을 것이라 주여 그를 그 원수들의 뜻에 맡기지 마소서 (시편 41:1-2)

하나님, 아프가니스탄에 자연재해와 경제적 위기 등으로 기아 상황이 심각하게 악화되어 사망자 또한 늘어가는 이 땅을 긍휼히 여겨 주십시오. 탈레반의 재집권 이후 인도적 지원이 쉽지 않은 상황을 주께서 다스려 주시고 하루빨리 식량이 공급되게 하옵소서. 주님, 아프간의 소망은 하나님입니다. 이 땅을 위한 몸 된 교회의 기도가 계속되게 하시며 간구에 응답하사 주님의 백성들을 건지시고 지키사 살게 하옵소서. 또한 적은 무리인 아프간 성도들의 삶을 통해 그리스도를 주로 삼는 은혜와 복을 모두가 얻게 하옵소서.

▲ 파푸아뉴기니, 여객 버스에 괴한 공격으로 7명 사망

파푸아뉴기니에서 괴한들이 여객 버스에 무차별 총격을 가해 최소 7명이 숨지는 등 사상자가 17명 발생했다고 연합뉴스가 외신을 인용해 23일 전했다. 호주 ABC방송 등에 따르면 22일 밤 파푸아뉴기니 앵가주 포르게라 광산 인근에서 총과 마체테(별목용 칼)로 무장한 10여 명의 괴한이 숨어있던 지나가던 여객 버스를 공격했다. 현지 경찰은 이번 공격으로 20여 명의 승객 중 7명이 사망했고 10여 명이 크게 다쳐 병원에서 치료받고 있으며, 인근 덤불로 숨어 들어간 일부 승객의 수색 작업을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이어 당분간 공공 버스를 이용하지 말고 오후 4시부터 다음 날 새벽 6시까지 야간 통행을 금지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한편 파푸아뉴기니의 앵가주는 파푸아뉴기니에서 가장 큰 금 매장지여서 이를 놓고 부족 간 다툼이 거세다. 지난달에도 부족 간 전쟁으로 30명 이상이 사망하면서 경찰이 비상사태를 선포하기도 했다.

네 마음으로 죄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고 항상 여호와를 경외하라 정녕히 네 장래가 있겠고 네 소망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내 아들이 너는 듣고 지혜를 얻어 네 마음을 바른 길로 인도할지니라(잠언 23:17-19)

하나님, 여객 버스에서 괴한들의 무차별 총격으로 사상자와 사망자가 발생하여 공공 버스 이용도 안전하지 않은 파푸아뉴기니를 다스려 주십시오. 오랜 시간 토지와 자원 등의 이유로 부족 간의 갈등과 유혈 충돌이 잦은 이곳에 교회가 먼저 연합의 본을 보이고 주의 말씀 안에서 지혜를 얻게 하옵소서. 복음으로의 회복이 하나님 경외함의 회복인 줄 믿습니다. 모든 마음에 진리의 빛을 비추사 바른 길로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나라로 회복하소서.